

# 숭의여자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	2018. 9. 4
위원정수	: 11명

1. 일 시 : 2018. 9. 7(금) 14:00 ~
2. 장 소 : 대학본관 205호 회의실
3. 참 석 : 총 7명  
이재식, 이애랑, 윤성준, 송지선, 정지열, 강명수, 이승원
4. 불 참 : 정길채, 이은숙, 서단비, 김민정
5. 안 건 : 1)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지침 자문  
2)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선출

## 6. 회의내용

- ▶ 의장은 11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한다.
- ▶ 의장은 이번 평의원회 회의는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3조 기능에 의거 1)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지침 자문과, 2)대학평의원회 부의장 선출, 2가지 안건을 논의하겠다 말한다.
- ▶ 의장은 먼저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지침 자문을 위해 교무처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▶ 교무처장은 「교육과정의 개편 및 운영」 대학 정책은 학칙을 근거로 관련 규정, 지침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맞게 지침을 마련했다 말하며, 이번 2019학년도 개편은 2017학년도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, 개선계획을 도출하여 환류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설명하다.
- ▶ 이를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양교과에 대한 결과 분석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7학년도 교양교과와 동일하게 유지하되, 1과목을 학부단위로 신설하기로 하여 요구분야를 검토, 신설 후보교과목을 선정하여 학부별로 선택하기로 하였고,
- ▶ NCS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도 지속적 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, NCS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NCS 60% 도입률, 직무별 60% 이상의 능력단위 활용 등을 지침에 반영하기로 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종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을 설명하다. 금번 개편되는 교육과정을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말하다.
- ▶ 의장은 의원들에게 회람한 2019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지침을 면밀히 검토

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- ▶ 윤성준의원은 지난 교양교육과정과 많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묻다.
- ▶ 교무처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2019학년도는 1과목을 학부단위로 신설함을 말하며 대학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직업기초 교양과목 운영 등을 제외하면 교양과목 구성이 어려움을 말한다. 따라서 관련 위원회에서 시스템 유지에 대해 의견이 많았으며 또한 교양과목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함에 따라 이 기초를 유지함에 초점을 맞췄다 말한다.
- ▶ 이애랑의원은 교양교육과정 분류가 일부에 치우진 면이 있다 판단되는데 이 점을 유의하였으면 한다 말한다.
- ▶ 의장은 의원들에게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지침에 대해 추가 자문사항이 없는지 묻고 기타 의견사항이 없자 다음 안건 사항을 말한다.
- ▶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공석으로 인해 부의장을 선출해야 함을 말하며 의원들에게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.
- ▶ 윤성준의원은 이애랑의원이 대학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교 전반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말하며 이애랑의원을 추천하다.
- ▶ 의장은 이애랑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묻자 정지열의원이 동의하고 강명수의원이 재청하였으며 나머지 의원 모두 찬성하다.
- ▶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을 확인 함.

2018. 9. 7.

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 재 식

부의장 이 애 랑

의 원 윤 성 준

송 지 선

정 지 열

강 명 수

이 승 원

